21/05/17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옴 샨티 1982/04/01

행운의 바탕은 버림이다 .

오늘 행운의 공여자인 밥다다는 그의 모든 자녀들의 행운과 버림을 보고 있었다. 너희는 무엇을 버렸으며 어떤 행운을 얻었는가? 너희들은 하나의 버림에 대한 보답으로 수백만 배의 행운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안다. 자녀들은 버림의 깊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버릴 때에는 매우 명확하고 긴 행운의 선이 그려진다. 버림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단계들이 있다. 사실 너희가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가 된 것도 하나의 버림이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브라민 삶이라는 행운을 얻었다. 이 점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브라민이라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또한 모두가 버림을 행한 영혼들이 되었다. 그러나 버림에는 등수가 있고 따라서 행운을 얻는데도 등수가 있다. 너희들은 모두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라 불리는데, 비록 모두가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일지라도 어떤 이는 염주의 일 번 구슬이 되고 다른 어떤 이는 마지막 구슬이 된다. 너희는 모두 슈드라의 삶을 버렸는데 왜 일 번과 마지막 등수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어떤 이는 관리자로서 가정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가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센터에서 봉사자로서 살기도 하는데, 그가 관리자로서 살든 봉사자이든 간에 이 두 유형의 브라민 영혼은 모두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라 불린다. 둘의 성은 같지만, 양쪽의 행운의 바탕은 버림이다. 봉사자가 되어 센터에 사는 것이 가장 고양된 버림 또는 행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리인으로 사는 영혼이라도 그들의 버림의 태도를 통해서 염주의 아주 좋은 번호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인으로서 사는 자는 진실해야 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 둘 다 행운을 얻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양된 행운의 선을 그리는 바탕은 고양된 생각을 갖고 고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관리자로서 사는 자이든 봉사자 영혼이든 둘 다 이것을 바탕으로 번호를 차지할 수 있다. 둘 다 행운을 만들어 낼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원하는 행운을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합류시대에는 드라마에 의해, 시간이 축복의 공여자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고양된 행운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브라마 쿠마르 또는 쿠마리가 된다는 것은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행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너희가 태어나는 순간 행운의 별이 너희 각자의 이마 위에 빛난다. 이것이 너희의 천부적인 권리가 되었다: 브라민이 된다는 것은 행운아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희가 얻은 천부적인 권리를 어느 정도로 늘리는가 또는 행운의 별을 얼마나 더 빛나게 또는 더욱 고양되게 만드는가는 너희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 너희가 받은 행운의 권리를 실제 생활에 훈습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늘림을 의미한다; 그것을 벌거나 써 버리는 것은 각자에게 달렸다. 너희가 태어나자 마자 밥다다는 너희 모두에게 똑 같은 행운의 재산과 “행운이 있으라”는 똑같은 고양된 축복을 준다. 너희 자녀들은 모두 “오래 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사랑 받으며 사랑스러운 자녀” 라는 같은 칭호를 받는다. 그는 어떤 이에게는 “너희는 오래 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녀다”라고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너희는 오래 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수는 재산을 돌보고 그것을 늘림으로써 만들어진다. 바바가 봉사자들에게는 수백만 배의 10 배를 주고 관리인으로서 사는 자들에게는 수백만 배의 2배만 주는 것이 아니다. 바바가 말한다: 너희들 모두 수백만 배의 행운아들이다. 그러나 행운의 보물을 돌본다는 것은 자아 속에 그것을 훈습함을 의미하며, 행운의 보물을 늘린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봉사를 위해 그것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등수가 만들어진다. 너희들 모두가 봉사자들이다. 너희들 모두가 다르나의 화신들이지만 그것이 되는 것은 등수대로다. 어떤 이들은 모든 미덕으로 완전해졌고 어떤 이들은 일부 미덕으로 완전해졌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는 다르나의 화신이며 어떤 이들은 때로는 다르나의 화신이고 때로는 격변의 화신이다. 그들은 한 가지 미덕을 택하고 나면 동시에 다른 미덕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관용하는 힘과 수용하는 힘을 동시에 필요로 할 때가 있다. 만일 너희가 단지 관용하는 힘 또는 미덕만을 훈습하고 수용하는 힘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한다; “글쎄, 나는 그렇게 오래 동안 관용해 왔는데 그게 작은 일인가? 내가 얼마나 관용했는지는 나 밖에 몰라.” 그리고 만일 관용한 후에 수용을 하지 못해서 수용하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너희는 그것에 관해서 여기 저기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래서 너희는 저렇게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관용을 했으니 기적(kamaal)을 행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너희가 행한 기적에 관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격동(dhamaal)으로 바꿔 버렸다. 왜냐 하면 그것에 관해 말함으로써 첫째로 너희는 육체의식이 되었고, 둘째로는 남들에 관해 생각을 했다. 너희는 이 두 가지를 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한 가지 미덕을 훈습하고 다른 것을 훈습하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다르나의 화신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보물들을 항상 훈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너희는 그것들을 돌보지 못한다. 그것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낭비했음을 뜻한다.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돌보고 다른 이들은 잃어버린다. 그러면 등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봉사에 무언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운의 재산을 늘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너희들 모두 봉사를 하지만 참된 마음과 참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과 그저 봉사자로서 봉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참된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만, 어떤 이는 그들의 머리를 바탕으로 봉사를 한다.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강력한 두뇌를 갖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것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사이에는 밤과 낮 만큼의 차이가 있다.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남들을 마음의 위로자인 딜아람에게 속하게 만들 것이다. 머리로 봉사하는 자들은 남들에게 말하는 법만을 가르쳐서 말하게 만들 것이다. 한 사람은 되새기고 다른 사람은 단지 말만 한다. 한 사람은 봉사자로서 참되게 봉사하는 봉사자이고 다른 이는 그저 이름을 얻기 위해 봉사하는 자이다.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으냐? 참된 봉사자는 누구에게 봉사를 하든 그들이 즉각적인 결실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단지 이름을 얻기 위해 봉사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는 "당신은 설명을 매우 잘 했고 말을 아주 잘 했습니다." 라는 칭찬의 형태로 좋은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취의 열매를 경험하게 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으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다른 이는 의무로서 봉사한다. 참된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지 의무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끝내고, 그 주일의 코스를 마치고, 요가 코스와 다르나 코스를 주고, 심지어는 멀리까지 듣게 만들지만, 그 영혼의 사랑이 아버지와 맺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계속 코스를 주지만 그 영혼을 어떤 힘으로도 채워 주지는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봉사에 대해 깊은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남들의 사랑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차이를 알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얻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너희가 그것을 돌보는 정도만큼 그리고 그것을 늘리는 정도만큼 그에 따라서 한 등수 앞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행운의 공여자는 모든 이에게 같은 행운을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버는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낭비하는 사람이 된다. 어떤 이는 그것을 다 써서 끝내 버린다. 이것이 두 종류의 염주가 있고 또한 각 염주가 등수대로인 이유이다. 등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겠느냐? 따라서 밥다다는 버림의 행운을 보고 있었다. 버림의 경이로운 게임은 또한 끝이 없다. 그것에 관해서는 바바가 다른 때에 말해 주겠다. 앗챠.

고귀한 행운을 가진 자들에게, 고양된 생각과 고양된 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행운의 선을 늘리는 참된 봉사자들에게, 모든 미덕과 모든 힘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자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즉각적인 결실을 주는 자들에게, 즉, 남들을 결실의 화신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버림을 행하는 자들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리와 보물을 끊임없이 돌보고 늘리는 고귀한 행운을 가진 자들에게, 다르나의 화신인 끊임없는 봉사자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과 만나심 : 끊임없이 너희의 의식에 " 천사가 되는 브라민과 신인이 되는 천사 " 라는 목표를 간직해라 .

너희들 모두 자신을 브라민으로, 따라서 천사로 여기느냐? 너희는 자신이 이제 브라민이며 그 다음 브라민에서 천사가 될 것이며 그 후에 천사가 신인이 될 것임을 기억하느냐? 천사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몸 안에 있는 동안 빛의 형태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각으로 끊임없이 저 위의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천사는 땅에 발을 딛지 않는다. 너희가 어떻게 위에 머물겠느냐? 지각을 통해서다. 지각의 발이 항상 고귀한 단계에 있어야 한다. 너희는 그런 천사들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는 어차피 브라민들이다. 만일 너희가 브라민이 아니라면 여기에 오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브라민들은 어느 정도로 천사의 단계를 취했느냐? 천사들은 빛으로 된 몸을 갖고 있다. 너희가 자신을 영혼으로, 빛의 화신으로 간주하면 할수록 걷고 돌아다니는 동안 더욱 더 자신을 빛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며 더욱 더 빛의 몸 안에서 걷고 있는 천사가 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천사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의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육체의식의 연결을 끊는 것이 천사가 된다는 뜻이다. 몸에 대한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의식을 끊는 것이다. 몸에 대한 연결이 끊어지면 여기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몸에 대한 의식이 끊어져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이 삶을 대단히 사랑하게 될 것이고, 마야가 어떤 식으로도 끌어당기지 못할 것이다. 앗챠.

2. 이 자아존중감을 유지해라 : 우리는 알라 (신) 의 정원의 꽃들이다 .

너희는 자신이 밥다다, 즉 알라의 정원의 꽃이라 여기며 움직여 나아가느냐? 자문해 보아라: 나는 계속 영적인 향기를 퍼뜨리는 한결같은 영적인 장미인가? 장미의 향기가 아주 달콤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 향기를 사방에 퍼뜨린다. 그것은 물질이고 없어지지만 너희는 진정으로 불멸하는 장미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불멸하는 영성의 향기를 끊임없이 퍼뜨리느냐? "우리는 알라의 정원의 꽃이 되었다." 라는 자아 존중감을 계속 유지해라. 이것이 다른 어떤 자아존중심보다 크다. "와, 나의 고귀한 행운이여!"라는 노래를 계속 불러라. 순진한 주님과 거래를 했으니 너희는 영리해졌다, 그렇지 않으냐? 누구를 너희의 것으로 만들었느냐? 너희가 누구와 거래를 했느냐? 얼마나 큰 거래를 했느냐? 너희는 이 거래에서 세 세상을 차지했다.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부자도 그런 큰 거래를 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런 고귀한 영혼들이다. 너희의 의식에 이런 위대함을 간직하며 전진해라.

3. 브라민의 의무는 행복을 기부는 것 그리고 위대한 기부자가 되는 것이다 .

가장 위대한 부는 행복의 부이다. 일반적으로 너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기부한다. 너희는 계속해서 행복의 부를 기부하고, 그 기부를 받은 사람들은 너희에게 계속 고마워 할 것이다. 너희가 불행한 영혼들에게 기부를 하면, 그들이 너희를 찬양할 것이다. 큰 기부자가 되어 행복의 부를 나누어라. 너희와 같은 이들을 일깨워서 길을 보여 주어라. 봉사가 없는 브라민 삶은 있을 수 없다. 봉사가 없이는 행복이 없으니 봉사에 바쁘게 지내라. 누구에게 든 반드시 기부를 해라. 무언가를 기부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어야 한다.

질문 : 어떤 자녀가 밥다다의 목 둘레의 화환의 형태로 꿰일 수 있겠느냐?
대답 : 그들의 목 둘레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그들의 입에서 아버지의 미덕들, 아버지가 주신 지식과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오는 자,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을 전하는 자이다. 오직 그러한 자녀들만이 밥다다의 목 둘레의 화환이 되어 그의 목 둘레의 화환으로 지낸다.

Blessing: 한결같이 장애에서 자유로워져서 침묵의 힘을 가지고 또 너희의 산스카르들을 서로 조화시킴으로써 모든 과제에 성공해라.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만 한결같이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너희가 자매나 형제를 볼 때에만 동요가 생긴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를 따르고 너희의 산스카르들을 아버지의 산스카르와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장애로부터 변함없이 자유롭게 머물 것이다. 장애가 아무리 클지라도 침묵의 힘을 지니고서 너희가 조용하게 있으면 그것이 쉽게 제거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과제가 자동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Slogan: 상황을 한 측면만으로 보지 않고 모든 상황에 유익이 들어있다고 여기는 자는 트리칼다르시라고 불린다.

***** 옴 샨티 O M S H A N T I *****